

우리의 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창의산업]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모두의 삶에 국민행복기술이 피어납니다.

이제 과학기술 정책은 성장에 치중해 왔던 구시대의 가치를 뛰어 넘어, 국민 행복을 실현하고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을 열어가는 변화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국민이 과학기술의 주인이 되는 정책으로 국민의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과학기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미래 선도자(first mover)로의 도약을 이끌고, 대·중·소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균형적 산업 생태계로의 이행을 촉진시켜겠습니다.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능력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고, 관리 중심에서 연구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 행복을 구현하고, 연구자에게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며, 학생에게는 글로벌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겠습니다.



| **창조경제** |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모두의 삶에 국민행복기술이 피어납니다.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새누리의 진단

- 창의력 · 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 연구 지원
 -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 융합형 연구공동체(학-연-산-지역)의 사회기여 및 글로벌 공동체 문제 해결 지원
 -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새누리의 실천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국가연구개발 투자 2017년 5%까지 확대

새누리의 진단

- 2011년 GDP 대비 국가전체 연구개발(R&D)비 비중은 세계 2위이나, 기초연구(18.1%)가 응용(20.3%) 및 개발(61.6%) 연구에 비해 저조
- 기업의 연구개발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민간 역량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응용·개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

새누리의 약속

- 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 비율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2012년 현재 35.2%에서 2017년 40% 수준으로 확대
- 정부 연구개발을 응용·개발 연구 중심에서 공공기술, 브레인웨어(Brainware)형 융합기술분야 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새누리의 실천

- 예산 조정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새누리의 진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가 별도로 운영·지원되고 있어 창조적 연구개발 인프라·지원 단절 초래
- 학계·기업계·연구계의 기초과학연구 필수적 장비인 각종 대형 가속기 사업이 분산 추진되고 있어 연구개발 지원의 효율성 저조
- 기초과학연구 지원부터 지식재산의 실용화 및 상용화 일괄 지원을 통해 창의적 지식재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 미흡

새누리의 약속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단(site lab)과 연구개발특구의 연계를 통한 기초 과학→개발·응용연구→사업화에 이르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구축 방안 마련
- 창의적 융합인재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생태계(창출-활용-보호)구축

새누리의 실천

- 창조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복지 향상

새누리의 진단

-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출연연 간 처우 불평등, 비정규직 증대 등으로 연구현장의 사기저하·불안정성 및 불만 증대 심화
- 사회적인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속에서 정부마저 여타 분야의 유공자에 비해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무관심 지속

새누리의 약속

- 정부출연연구소의 예산제도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각종 불합리한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자율성 제고
- 과학기술계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개선하고, 육아·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 확대
- 보다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사학연금 수준으로 조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
-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사기 진작책 마련

새누리의 실천

- (가칭)「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국민행복기술과 브레인웨어 융합신기술로 창조산업 육성

새누리의 진단

- 전세계 각종 R&D 및 설계비용의 대부분이 구매력 있는 10% 미만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90%는 첨단기술로부터 소외돼 있는 상태
- 지금은 투자력으로 승패가 갈라지던 산업구조를 넘어 두뇌싸움(창조력 · 상상력 · 아이디어 등)으로 승패가 좌우되는 시기

새누리의 약속

- 국민의 복지 · 생명 · 건강 · 재산 · 환경 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 에너지 및 식량위기, 기후변화 등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과학기술기반 확충
- 국민행복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국민행복기술 개발 혜택을 해외의 어려운 국가들에도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로 전파 · 확산하는 등 과학기술 ODA를 통한 과학한류 확산 및 국격 제고
- 브레인 나노-바이오(Brain Nano-Bio) 및 브레인 나노-에코(Brain Nano-Eco) 등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브레인웨어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 기술 개발 강화

새누리의 실천

- 기후변화 및 산업재해 대비 등 국민행복기술 분야 R&D 예산 확대

